"11번째 개인전, 일렁이는 마음의 방향성 찾았죠"

28일까지 예술공간 집 임현채展

동화적 상상력 일상의 공간 그려
바람 빠진 '풍선' 통해 쉼표 미학
상상 속 빛바랜 고향에 대한 향수

빛바랜 곰돌이 인형과 장난감, 오래된 주택집 옥상, 굴러다니는 돌멩이, 고즈넉한 촌의 풍경…. 지극히 일상적인 풍경임이 분명한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갤러리 예술공간 집은 무의식 속 찬찬히 일렁이는 나만의 공간을 재현한 임현채 작가의 개인전 '함께 가는거야'를 오는 28일까지 연다.

임 작가는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공간과 사물의 흔적들을 무수한 서사로 펼쳐낸다. 개인의 삶을 투시하고 교감하던 작가의 사색에서 현실 교감으로 이어진 작가만의 감성은 보다 무게감 있는 울림을 준다. 이번 전시에서 더 깊이 삶의 내면을 관찰하고 의미를 되새겨 온 작가의 마음이 투영된 작품 30여 점이 걸렸다.

화폭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 중 '풍선'이 눈에 띈다. 팽팽하게 바람이 채워진 모양새를 상상하게 되지만, 그녀의 세상에서는 바람이 빠져 축 가라앉은 풍선이 등장한다.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고 어딘가에 안착한 풍선은 삶의 쉼표를 뜻하며, 되려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빛바랜 기억 속 머물러 있는 순창 고향 집을 묘사한 '꿈많던 시절'은 유독 향수가 짙게 밴 작품이다.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세계는 작가 내면에서 재창조된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등을 졸업한 임 작가는 지난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광주에 정착했다. 광주에서 창작활동을 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11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 중견작가 그 문턱을 바라보며 임 작가는 또 한 번 정체성을 고민한다.

"지난 10여 년간 조용하게, 그렇지만 치열하게 방향성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찬찬히 일렁이는 마음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했죠. 이번 전시는 특히 작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애정하는 공간 속 흩어진 잔상들이 비로소 자리를 찾고 한층 더 깊어진 세계를 마주한 것 같아요."

이번 전시의 특별행사로 2개의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장 한 켠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자신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당신의 조각을 그려보아요'와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도란도란 그림 이야기'이 예정돼 있다.

오는 20일 오후 2시와 25일 오후 7시 작가와 함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여자들이 그린 그림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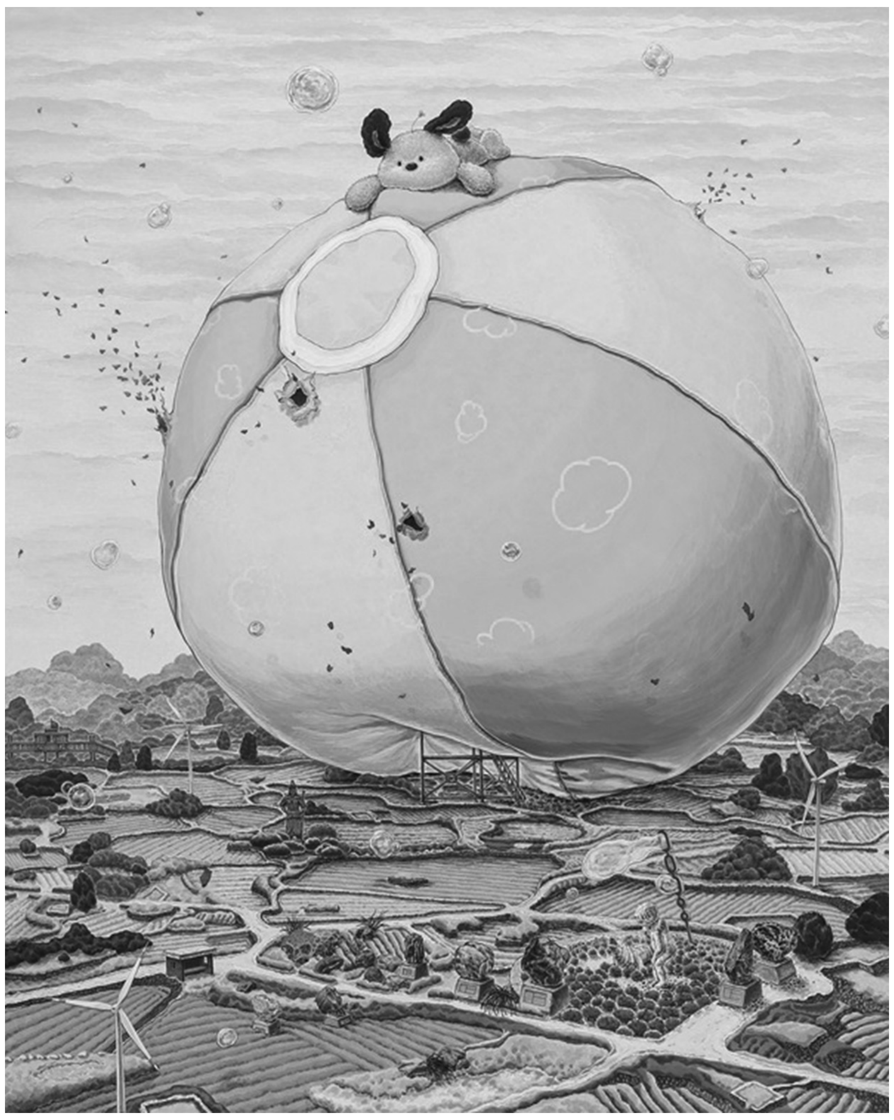
전시를 개최한 예술공간 집 문희영 대표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림들이다. 무겁지만 가볍게, 애틋하게 삶을 보듬는 작가의 마음이 투영된 그림들과 함께 예술이 주는 충만함을 마음가득 느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현채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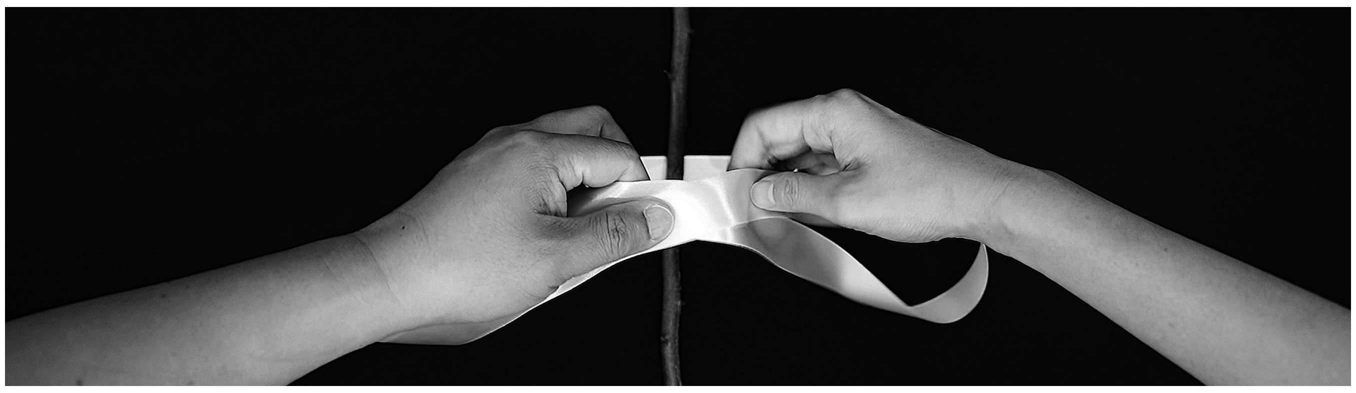
지난 2019년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도 활동했다. 총 1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품은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오승우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예술공간 집'은 동구 장동에 있다. 전시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임현채 작 '사뿐히 내려앉아'. 예술공간 집 제공



권은비 작 'lines of names', 2채널비디오, 10분, 2024.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제공

비극의 대항적 관계를 파헤치다 '증인으로서의 자연'

28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식민지 등 지배적 관행 거부한 작품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대항적 관계의 공존을 탐구한 기획전 '증인으로서의 자연'을 오는 28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의 다학제적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 '드리프팅 커리큘럼'과 캐나다의 연구 창작 집단인 '카운터 메모리 액티비즘'의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전시에는 권은비, 박한나, 솔로몬 나글러, 송지형, 안젤라 헤더슨, 양숙현, 정윤진, 정혜정 총 8인이 참여했다. 기획은 멜라니 윌민크, 조주현이 맡았다.

전시는 '숨겨져 있거나 지워진 공공 기억'의 흔적에서 시작된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가 경험한 역사적 갈등, 생태적 재난 등에서 촉발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써 '대항적 기억(counter-memorialization)'을 탐구한다.

참여작가들은 인류세, 지구환경 위기, 생태재앙, 자본주의 속 폭력, 식민지…. 지속된 과거의 비극에서 자연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대항적 내러티브'를 구축해 지배적인 지도제작 관행에 도전한다.

전시 관계자는 "광주가 갖는 트라우마, 캐나다의 식민지 역사를 고찰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찰과 치유, 회복의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구 양림동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아트폴리곤'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모든 문화 활동을 허용하는 복합전시공간'이다. 원요한 선교사 사택의 차고로 쓰였던 10평 남짓한 공간을 문화예술기획사인 아트주가 원래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증축해 현재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전시 관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ACC 매력 알릴 어린이 해설사 양성

초5~6학년… 29일까지 모집

"ACC의 매력을 나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린이 해설사에 도전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16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ACC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은 오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문화전당 일대 및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ACC의 이야기를 또래 관람객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전당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 교육은 ACC 여러 공간을 중심으로 △투어해설 교육 △해설 대본 작성법 △해설 실습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참여 학생은 전문 강사의 시나리오 작성 교육과 ACC 투어 해설사가 지도하는 현장 해설 실습교육도 받는다.

특히 교육을 수료한 어린이는 9월부터 12월까지 'ACC 어린이 탐험대' 프로그램 등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창조원 전시 현장에서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시간에 한해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며 우수 활동 어린이는 ACC재단 사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된다.

모집대상은 ACC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 5~6학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명 내외의 어린이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어린이들이 관람객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보다 주도적이고 사회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가 ACC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이다.

도선인 기자

예술적 마을 제의 엿보기 '동해안별신굿' 공연

20일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2024 굿음악축제 초청공연 '동해안별신굿'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국립남도국악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부터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2024 굿음악축제 '운수대통, 만사형통 굿!' 일환으로 열린다. 국립남도국악원 다양한 공연과 학술회의, 부대행사 등을 절찬리 이어가고 있다.

'동해안별신굿' 무대는 2024 굿음악축제 네 번째 초청공연이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 어촌마을의 풍어와 안과태평을 기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마을 공동 제의이다. 무대에는 동해안별신굿보존회가 선다.

오는 27일에는 2024 굿음악축제의 마지막 공연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조감제'가 예정돼 있다. 공연은 무료이고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s://jindo.guga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